

나찌 예술에서의 파시스트 미학 특성 연구

임 상 임* · 추 미 경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전공

대중문화가 활성화된 1990년대 이후 전체주의는 매력적이고 호감을 사는 이데올로기적인 힘으로 다가와 사회적 위기상황과 서로 대립하면서도 대중문화와 상호간 자신의 존재 근거를 찾는 적대적 공존 관계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미학적 경향들을 도출한다. 특히 전체주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파시즘은 현재화된 자본주의의 모순과 그 전반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출현하여 힘과 지배를 상징하는 가장 대중성을 띤 이데올로기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시즘은 이제 일상적 파시즘론으로까지 등장하여 이 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소중한 패러다임으로써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파시즘에 있어서 예술은 문학과 마찬가지로 심미적(審美的)이기보다는 공리적(公理的)으로 사유되거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착취되었다. 이에 파시즘 요구에 항거하는데 있어서 예술인들은 이러한 체제에 동화(同化)하기를 거부하는 정도로만 표현할 뿐 아니라 이들이 저항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복식에 있어서 밀리터리 룩은 정신과 표현수단이라는 양자간의 피드백을 만족시키면서 전체주의의 공격적인 현상들과 파시즘이 결합되어 패션의 변화상에 있어서 커다란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밀리터리 룩에 표현된 파시즘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파시스트 미학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파시즘 연구자들의 견해와 더불어 나찌 예술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유추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나찌 예술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유는 세계대전 전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예술품은 매우 현저하지만 이 중 독일 나찌 예술의 회화, 조각, 건축은 선전과 테러의 공리적(公理的)인 목적아래 전체주의 국가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밀리터리 룩에 표현된 파시즘 연구에 대한 제1보로써 나찌 예술에서의 파시스트 미학에 관한 고찰을 위해서 동서양의 문헌자료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 외 사진자료와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파시즘 연구자들의 견해와 나찌 예술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파시스트 사고 체계 내에서 형성된 미학의 유형적 특성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형성된 만큼 표현 의도도 다양하고 표현양식도 다양하였다. 반면에 이러한 특성이 어느 정도 공통 기반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었고 여기에 근거하여 내셔널리즘, 유희성, 신화성, 야만성이라는 미학의 범주로 크게 유추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셔널리즘은 나치즘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서 여기서는 인종차별 정책을 취하여 아리안족의 우수성과 그 혈통의 순수성 유지라는 신화를 창조하여 민족주의적 지향과 국수주의를 강조한 것을 말한다. 특히 조각에서 엿볼 수 있는 민족정신은 내면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적이고 정신적인 재탄생을 위한 총괄적인 문화적 쇄신으로 볼 수 있으며 나중에 새로운 미학의 기본이 되었다. 내셔널리즘은 대내적으로는 동질성의 추구라는 면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공동체의 연대성까지도 포함하지만 결국 파시스트에게서 인종 차별주의나 민족국가의 유기적 단일체 개념은 인종의 우월성을 내세워 정치적 선전 등에 이용했던 것으로 대중의 원초적 민족 감정에 호소하기

* Corresponding author: sangim@wonkwang.ac.kr

위한 것이다.

둘째, 유혹성은 파시스트들이 대중없는 대중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선전기술로 이용된 것이다. 먼저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치성 유포나 정치 미화, 선동, 선전하여 혼란스러운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술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나찌 미술에서는 여성의 모습을 누드화 및 모성애나 가족애 등을 주제로 한 작품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누드화는 이상적인 양식으로 제시되어질 때 에로틱한 의미 그것만으로 완화되지 않았고 더욱 더 첨예화된 의미로 나타났다. 결국 파시스트들은 예술작품에서나 사회적 상황에서 여성을 남성의 선택을 위한 아름다움의 이상, 모성애 또는 가족애의 중추적인 역할 그리고 이와 상충되는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분야의 참여 여부에 따른 새로운 여성상을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려졌다. 이외 파시스트들은 엘리트와 노동자 계층간의 대중융합을 위한 순수예술과 대중문화를 융합시킨 키치적 기법을 활용, 대중을 유혹하였다. 이처럼 파시스트들에게서 유혹성은 대중의 유혹을 자극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막강한 권력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신화성은 단순히 흥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실제에 있어서 시간개념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권력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파시스트들은 대중적 호소력을 지닌 신화 속 영웅의 이미지와 상징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회화나 조각, 스포츠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파시스트적인 정통성이 위태롭게 되고 이러한 여파에 따른 하부계층의 테러나 군 정당의 난무로 이어짐으로써 약화된 대중의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나타났다. 또한 신화성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인 중세적인 이미지는 파시스트들이 엄격한 사회적 위계질서를 유지하면서 통합을 이룬 사상 속의 봉건시대를 찬양한 이미지이다. 결국 신화성은 파시스트들이 대중적 호소력을 지닌 이미지와 상징들을 활용하여 실재에 대한 비전과 이미지의 마력을 통하여 강한 감정적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야만성은 전쟁을 미학화 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대규모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전쟁의 미학은 전쟁에 대한 전체 사회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이며, 또한 다가오는 전쟁을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준비에서부터 위기적인 상황까지 과잉포장으로 나타내야만 했다. 그리하여 지난 전쟁과 모든 미래의 전쟁은 사전에 정당하게 끝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종족적 지배욕구에 대한 당연한 투쟁이라는 점으로 더욱 야만시하였다. 특히 조각상에서 일반적으로 기념비화 되거나 상징적으로 찬양되는 커다란 상(像) 등은 파시스트의 약탈성과 공격성이 잘 나타나 있고, 실물크기보다 큰 이상적인 나체상으로 표현된 전투 상들은 대부분으로 일반적인 전투에 대한 영원한 이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기념비적인 조각상이나 제국을 상징하는 실물보다 큰 동물상이나 흉상 그리고 전쟁에 대한 표현 등은 힘과 투쟁을 상징함으로써 파시스트의 이데올로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또한 파시스트는 유대인을 민족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린 것으로 간주 박해나 방해하는 등으로 그들이 의도한 적대자상의 정립 계획에 대한 모든 요소는 공격적 또는 의식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파시스트의 반자본주의와 반 부르주아를 위장한 하나의 계략으로서, 그것은 도리어 파시즘이 종식된 후 후기자본주의에 의하여 그 뿌리를 내리게 된 물질문명에 대한 파시스트의 야만성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파시스트 미학은 각기 이해타산이 다른 대중들의 독자적 관심사를 공략, 선동하기 위하여 다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파시즘의 궁극적인 상징적인 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나찌 예술이 파시즘 체제의 이념에 가까운 새로운 주제에 적용하거나 파시즘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던 '정치의 심미화'처럼 파시스트 미학 또한 정치 색(色)을 가장해야만 했다.